



기출 연계 분석 리포트

새 지문과 연결되는 평가원·교육청 기출 후보를 정리한 학생용 자료입니다.

분석 대상

자연법과 실정법: 고전 자연법에서 현대 자연법론까지 수특 p.63-66

평가원 최상위 후보

2014-09-03 시행 ·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고3 · 26-30

교육청 최상위 후보

2025-07-10 시행 · 2025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고3 · 4-9

관련 연계 후보

1. 2014-09-03 시행 ·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고3 · 26-30 | 평가원
정답: 26 ③ · 27 ④ · 28 ④ · 29 ⑤ · 30 ②
2. 2025-07-10 시행 · 2025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고3 · 4-9 | 교육청
정답: 4 ② · 5 ⑤ · 6 ④ · 7 ② · 8 ⑤ · 9 ④
3. 2021-11-24 시행 · 2021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고1 · 37-41 | 교육청
정답: 37 ② · 38 ④ · 39 ⑤ · 40 ③ · 41 ②

연계 포인트

비슷한 점

두 지문은 '자연법, 실정법'을 실제 공통 개념으로 다룹니다. 또한 개념의 정의와 구분, 서로 다른 기준의 대조 구조를 통해 개념 사이의 관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게 합니다.

차이점

공통 개념은 있지만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새 지문은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적 정'까지 연결해 사상과 개념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기출은 '법률실증주의'까지 범위를 넓히며 설명 초점...

활용 방향

평가원 문항 26-30을 풀기 전에 공통 개념 '자연법, 실정법'의 정의·조건을 양쪽에서 표로 대조하세요. 이후 보기와 선지가 어느 지문의 고유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1순위 연계 후보

아래 원문 PDF를 보기 전에 연결 근거와 활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2014-09-03 시행 ·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고3 · 26-30

기관 평가원 | 문항 26-30 | PDF 쪽 9, 10
정답 26 ③ · 27 ④ · 28 ④ · 29 ⑤ · 30 ②

연계 포인트

새 지문 내용

[핵심] 실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연법의 개념과 그 철학적 전개, 그리고 현대적 사회 구현 방식 [전개] 지문은 먼저 실정법과 자연법을 대비하여 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뒤, 고대 그리스에서 스토아학파로 이어지는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를 설명한다. 이어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정리한 내용을 제시하고, 현대에 들어 마리탱이 자연법을 인간 내면의 질서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 재해석한 관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메스너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과 제도적 구현을 강조하며, 두 현대 자연법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핵심 개념] 자연법 실정법,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자크 마리탱 자연법, 요하네스 메스너 자연법, 인권 철학 자연법, 실정법 정당성

기출 지문 내용

2014-09-03 고3 9월 모의평가 26-30은 [핵심]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 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핵심 개념] 자연법, 인간, 법률실증주의, 실정법, 고전, 질서

비슷한 점

두 지문은 '자연법, 실정법'을 실제 공통 개념으로 다룹니다. 또한 개념의 정의와 구분, 서로 다른 기준의 대조 구조를 통해 개념 사이의 관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게 합니다.

차이점

공통 개념은 있지만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새 지문은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적 정'까지 연결해 사상과 개념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기출은 '법률실증주의'까지 범위를 넓히며 설명 초점은 규범과 제도의 적용 방식입니다. 공통 원리와 각 지문에만 있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활용 방향

평가원 문항 26-30을 풀기 전에 공통 개념 '자연법, 실정법'의 정의·조건을 양쪽에서 표로 대조하세요. 이후 보기와 선지가 어느 지문의 고유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써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26.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2순위 연계 후보

아래 원문 PDF를 보기 전에 연결 근거와 활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07-10 시행 · 2025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고3 · 4-9

기관 교육청 | 문항 4-9 | PDF 쪽 2, 3

정답 4 ② · 5 ⑤ · 6 ④ · 7 ② · 8 ⑤ · 9 ④

연계 포인트

새 지문 내용

[핵심] 실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연법의 개념과 그 철학적 전개, 그리고 현대적 사회 구현 방식 [전개] 지문은 먼저 실정법과 자연법을 대비하여 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뒤, 고대 그리스에서 스토아학파로 이어지는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를 설명한다. 이어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정리한 내용을 제시하고, 현대에 들어 마리탱이 자연법을 인간 내면의 질서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 재해석한 관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메스너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과 제도적 구현을 강조하며, 두 현대 자연법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핵심 개념] 자연법 실정법,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자크 마리탱 자연법, 요하네스 메스너 자연법, 인권 철학 자연법, 실정법 정당성

기출 지문 내용

2025-07-10 고3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9은 [핵심]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 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 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①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아 렌트는 ①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 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핵심 개념] 행위, 로고스, 인간, 로고스 중심주, 철학, 좋은 삶

비슷한 점

두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정당성'을 실제 공통 개념으로 다룹니다. 또한 개념의 정의와 구분, 서로 다른 기준의 대조 구조를 통해 개념 사이의 관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게 합니다.

차이점

공통 개념은 있지만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새 지문은 '자연법 실정법,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자크 마리탱 자연법'까지 연결해 사상과 개념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기출은 '행위, 로고스, 로고스 중심주, 좋은 삶'까지 범위를 넓히며 설명 초점은 규범과 제도의 적용 방식입니다. 공통 원리와 각 지문에만 있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활용 방향

교육청 문항 4-9을 풀기 전에 공통 개념 '아리스토텔레스, 정당성'의 정의·조건을 양쪽에서 표로 대조하세요. 이후 보기와 선지가 어느 지문의 고유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라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며,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에 우위를 부여해 왔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에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한의 순간에는 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험적 법 규범이 부재하기에 제한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은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다.
- ②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경향을 언급하고 이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로고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한 후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ㄱ)와 아렌트의 견해(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공적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ㄱ은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ㄱ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ㄴ은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ㄱ과 ㄴ은 모두 말을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다음은 갑과 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
을: 데리다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데리다의 해체 철학은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야.

- ①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감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종결
- ②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
- ③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경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
- ④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개방된 사회를 추구
- ⑤ 정의의 기준을 재사유함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하여 법질서의 해체를 지향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은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② ㉠은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을, ㉡은 제한 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온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③ ㉠은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은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④ ㉠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은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은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 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절대 왕권 체제였던 A 국에서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들은 많은 토의 끝에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B 연방국을 설립하였다. B 연방국은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B 연방국의 C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C 지역의 주민 의회는 이민자에게 C 지역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다.

- ① A 국에서의 혁명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군.
- ② B 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군.
- ③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보겠군.
- ④ C 지역의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보겠군.
- ⑤ C 지역의 주민 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보겠군.

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를
- ② ㉡: 다다를
- ③ ㉢: 누릴
- ④ ㉣: 뒷받침할
- ⑤ ㉤: 여겨져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긴 다리 위에 자동차가 가득할 때, 다리는 어떻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다리에 가로놓이는 부재인 보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크리트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하여 무게를 지탱하게 할 수 있다. 하중 등의 외력이 부재에 작용할 때 그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인 내력이 발생한다. 응력은 내력을 부재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면적당 내력의 크기이다. 응력에는 물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인 인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 이와 반대로 물체를 압축하는 힘인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 등이 있다. 외력이 증가하면 응력도 증가하지만,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인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후 응력이 더 증가하면 부재가 파괴되는 극한 상태에 도달한다.



3순위 연계 후보

아래 원문 PDF를 보기 전에 연결 근거와 활용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1-11-24 시행 · 2021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 고1 · 37-41

기관 교육청 | 문항 37-41 | PDF 쪽 13, 14

정답 37 ② · 38 ④ · 39 ⑤ · 40 ③ · 41 ②

연계 포인트

새 지문 내용

[핵심] 실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연법의 개념과 그 철학적 전개, 그리고 현대적 사회 구현 방식 [전개] 지문은 먼저 실정법과 자연법을 대비하여 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뒤, 고대 그리스에서 스토아학파로 이어지는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를 설명한다. 이어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정리한 내용을 제시하고, 현대에 들어 마리탱이 자연법을 인간 내면의 질서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 재해석한 관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메스너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과 제도적 구현을 강조하며, 두 현대 자연법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핵심 개념] 자연법 실정법, 토마스 아퀴나스 영원법, 자크 마리탱 자연법, 요하네스 메스너 자연법, 인권 철학 자연법, 실정법 정당성

기출 지문 내용

2021-11-24 고1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7-41은 [핵심] (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 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 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인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핵심 개념] 인간, 정념, 감각적 욕구,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아퀴나스, 차원 사랑

비슷한 점

두 지문은 '아퀴나스, 토마스, 자연적'을 실제 공통 개념으로 다룹니다. 또한 개념의 정의와 구분, 서로 다른 기준의 대조 구조를 통해 개념 사이의 관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게 합니다.

차이점

공통 개념은 있지만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새 지문은 '자연법 실정법, 자크 마리탱 자연법, 요하네스 메스너 자연법'까지 연결해 사상과 개념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기출은 '정념, 감각적 욕구,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차원 사랑'까지 범위를 넓히며 설명 초점은 사상과 개념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공통 원리와 각 지문에만 있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활용 방향

교육청 문항 37-41을 풀기 전에 공통 개념 '아퀴나스, 토마스, 자연적'의 정의·조건을 양쪽에서 표로 대조하세요. 이후 보기와 선지가 어느 지문의 고유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B]에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 있다.
- ② [A]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한 주체가,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한 주체가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체념이, [B]에는 상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가 나타나 있다.
- ④ [A]에는 특정 인물과의 재회를 바라는 이유가, [B]에는 특정 인물과의 재회가 가능해진 이유가 나타나 있다.
- ⑤ [A]에는 기대가 실현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경이, [B]에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경이 나타나 있다.

35. 다음은 [동전 축사(祝辭)]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동전을 던지는 인물	알고 싶은 내용	동전의 위치	
			방중	방 밖
㉠	주소저	정낭자와 배필이 될 수 있는가?	○	
㉡	주소저	간택된 양 씨를 퇴할 수 있는가?		○
㉢	정소저	부친이 전장에서 성공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가?		○
㉣	정소저	전장에 나아가 선전할 수 있는가?	○	
㉤	정소저	이후 험한 일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될 수 있는가?	○	

- ① ㉠에서 ‘동전을 던지는 인물’은 ‘동전의 위치’를 보고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꺼리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겠군.
- ③ ㉢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겠군.
- ④ ㉣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하고자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바라는 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군.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소설에서 ‘복장전환’이라는 화소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준다. 복장전환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를 통해 인물들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이성과 교우를 맺기 위해 복장전환이 사용된다.

- ① 태자가 ‘여복으로 갈아 입’고 정소저를 뒤따라 ‘관음사로 찾아가’는 것에서, 애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복장전환을 선택한 인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태자가 자신을 ‘주상공 댁 소저’로 속이고 정소저와 ‘서로 슬픈 정회를 위로’하며 ‘옥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에서 복장전환이 이성과의 교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주소저가 ‘탁월한 풍채와 늠름한 기상’을 지닌 정소저를 보고 놀라는 것에서 정소저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복장전환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자이오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했다고 한 정소저가 ‘남자 되어 적진을 진정시’켰다고 하는 것에서 복장전환을 한 인물이 자신의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정소저가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소년’ ‘장수’가 되었다는 것에서 인물이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장전환을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아퀴나스에 ㉡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

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인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법칙을 ㉠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을 추구한다.
- ②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③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
- ④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 ⑤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정념이라 부른다.

39.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들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평소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갔다.

-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이겠군.
- ②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겠군.
- ④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겠군.
- ⑤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겠군.

40.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택한 선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② (가)의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 ④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⑤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41. 다음 중 ㉠과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랐다.
㉡: 춤으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 ② ㉠: 그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 우리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 ③ ㉠: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
㉡: 우리 집 개는 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
- ④ ㉠: 아무도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없었다.
㉡: 그는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었다.
- ⑤ ㉠: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했다.
㉡: 나는 강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